

# 『東醫寶鑑·臟腑』의 單方藥物을 통한 四象臟腑論에 대한 考察

한경석\* · 박성식\*

## Abstract

###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 in Simple-herb of 『DongEuiBoGam · JangBu』

Han Kyung-suk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 1. Purpose

Through analysing simple herbs of 『DongEuiBoGam · JangBu』, we compare JangBu of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with JangBu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 we can comprehend the JangBu's difference of traditional-oriental with sasang-constitutional medicine

#### 2. Method

We divide herbs into 4 sectors of sasang constitution by 『DongMuYooGo』, 『DongEuiSuSeBoWon · SinJungBang』 and define constitutional herbs for each type of sasang constitution. On that base, we analyze herbs in 『DongEuiBoGam · JangBu』 into sasang constitution, and compare with JangBu of sasang-constitution

#### 3. Result

- ① The simple herb of sasang-constitution is over 50% at that of 『DongEuiBoGam · JangBu』
- ② Only small intestine is consist of one-constitutional herb, others is 2~4-constitutional herb
- ③ At the simple herbs of 『DongEuiBoGam · JangBu』, Soeumin's herbs many used at Spleen, Stomach, Urinary bladder, SamCho, Taemin's herbs many used at Lung. At the Soeumin and Taemin, the Sasang JangBu of filling up BoMyungGiju(保命之主) is connected with traditional JangBu. Soyangin's herbs many used at Heart, Gall bladder, Small intestine and there is no JangBu which Taeyangin's herbs many used. At the Soyangin and Taeyangin, the Sasang JangBu of filling up BoMyungGiju(保命之主) is not connected with traditional JangBu.

Key words : Simple herb of 『DongEuiBoGam · JangBu』, JangBu, Constitutional herb

## 1. 緒論

許浚은 東武가 으뜸으로 들고 있는 醫家 중에 한

명으로<sup>1)</sup> 『東醫壽世保元』의 많은 부분이 간접적으로 『東醫寶鑑』에서 인용되어 졌다.<sup>2)</sup> 四象醫學에서의 臟腑는 『東醫壽世保元』 『臟腑』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한경석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전화)031-710-3723 E-mail)passik@hitel.net

既存醫學의 臟腑와 部位, 生理病理機能, 臟腑循環, 器官組織의 臟腑配屬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既存醫學과 體質醫學의 臟腑와 經絡의 概念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既存醫學의 思考로서 四象醫學을 이해하려 하였고, 특히 李炳幸의 太極鍼法<sup>3)</sup>과 權度沅의 體質鍼法<sup>4)</sup> 등에서는 既存 臟腑論과 四象 臟腑論의 差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臟腑論의 差異를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四象人의 肺脾肝腎 藥物 236種과 『東醫寶鑑』의 五臟六腑에 나타나는 單方藥物<sup>5)</sup>을 비교하여 既存醫學과 四象醫學의 臟腑論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표로 하였다.

## II. 本論

### 1. 體質藥物의 分類

#### 1) 『東武遺稿』<sup>6)</sup>

북한 보건성 『東武遺稿』에서 東武는 “東武先師

四象藥性 經驗古歌”라고 하여 脾藥(少陰人藥物) 90種, 肺藥(太陰人藥物) 61種, 腎藥(少陽人藥物) 67種, 肝藥(太陽人藥物) 18種해서 모두 236種(神曲, 紫河車 2藥物이 少陰人, 少陽人에 동시에 언급되어 실제로 234藥物)에 대해서 體質別로 나누어 놓았다. 아래의 四象人 藥物표(표1)는 『東武遺稿』의 藥物을 중심으로 가나다순으로 하였고, 新定方에서 사용된 藥物과 동일한 藥物은 (신)이라고 표시하였다.

#### 2) 『東醫壽世保元』 新定方<sup>1)</sup>의 藥物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따로 藥物分類를 해놓지 않았고, 각기 다른 體質의 處方 中에서는 중복되는 藥物은 없다. 少陰人處方에 사용된 藥物은 43種이고, 太陰人處方에 사용된 藥物은 44種이고, 少陽人處方에 사용된 藥物은 37種이고 太陽人處方에 사용된 藥物은 10種 해서 모두 134種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 白茯苓-茯苓-赤茯苓, 乾薑-炮乾薑, 蘇葉-紫蘇葉, 皂角-猪牙皂角으로 다르게 해서 헤아렸다.) 그리고 이 약물들은 『東武遺稿』에서 모두 사용되었으며 體質의 配屬이 다른 藥物은 한가지도 없었다.

표 1. 四象人의 藥物

분류	해당 體質別 藥物
脾藥 (少陰人藥物)	訶子, 甘藷, 甘草(신), 乾薑(신), 大肉, 桂枝(신), 桂皮(신), 藿香(신), 金蛇酒, 糯米, 南星, 檀香味, 當歸(신), 大蒜(신), 大薤(신), 大茴, 桃仁, 木香, 半夏(신), 白豆蔻(신), 白灼藥(신), 白朮(신), 鱉甲, 腹皮(신), 蓬朮, 附子, 砒霜, 檳榔, 砂仁(신), 山查(신), 三稜, 常山, 生薑(신), 石蜜(신), 細辛, 蘇子, 蘇合油, 小茴(신), 粟米, 神麩, 安息香, 艾葉, 罌粟殼(신), 良薑(신), 練子, 鹽, 五靈脂, 吳茱萸(신), 烏藥, 禹餘糧, 雄雞(신), 硫黃, 肉桂(신), 肉豆蔻, 益母草(신), 益智仁(신), 人蔘(신), 茵陳(신), 紫蘇葉(신), 紫河車, 獐肝及茸, 赤石脂(신), 赤芍藥, 丁公藤, 丁香, 枳殼, 枳實, 稷米, 陳皮(신), 蒼朮(신), 川芎(신), 川烏, 川椒, 鐵漿, 苧皮(신), 蔥白(신), 雉肉, 沈香, 破古紙(신), 巴豆(신), 蕁芩, 何首烏(신), 項赤蛇, 海鹽自然汁及, 香附子(신), 香薷, 玄胡索, 胡椒, 紅花, 黃芪(신), 厚朴
肺藥 (太陰人藥物)	葛根(신), 薏本(신), 瓜蒂(신), 款花(신), 菊花(신), 金雞蠟, 金箔(신), 桔梗(신), 蘿蔔, 蘿蔔子(신), 萊菔根, 鹿角膠及角, 鹿茸(신), 陵苒, 大豆黃卷(신), 大黃(신), 麻黃(신), 麥門冬(신), 白果(신), 白蠟(신), 栝子仁(신), 白芷(신), 浮萍(신), 使君子(신), 砂糖, 麝香(신), 酸漿, 酸棗仁(신), 桑皮(신), 犀角(신), 薯蕷(신), 熟雞卵, 升麻(신), 蓮肉(신), 羚羊角(신), 烏梅, 五味子(신), 龍骨, 龍腦(신), 龍眼肉(신), 牛肉, 牛黃(신), 鬱金, 熊膽(신), 遠志(신), 粟子, 慈苳仁(신), 梨, 鯉膽, 檉根(신), 田螺, 蟾蜍(신), 皂角(신), 酒, 車前葉, 菖蒲(신), 天門冬(신), 側柏葉, 蒲黃(신), 杏仁(신), 黃芩(신)
腎藥 (少陽人藥物)	甘遂(신), 羌活(신), 輕粉(신), 鷄內金, 苦蔘(신), 瓜薤仁(신), 枸杞子(신), 金銀花(신), 蘆薈, 綠豆, 大麥, 獨活(신), 童便, 芒硝, 麥芽, 牡丹皮(신), 木通(신), 沒藥, 薄荷(신), 防風(신), 茯苓(신), 覆盆子(신), 茯神, 硼砂, 山茱萸(신), 生乾地, 生鷄卵, 生地黃(신), 石膏(신), 石油, 石花, 小麥, 水銀, 熟地黃(신), 柴胡(신), 神曲, 連翹(신), 靈砂, 牛蒡子(신), 乳香, 忍冬藤(신), 人乳, 紫河車, 豬苓(신), 豬肉, 赤豆, 前胡(신), 朱砂(신), 竹瀝, 竹茹, 地骨皮(신), 知母(신), 榛子, 車前子(신), 天花粉, 蒟瓜, 茯苓, 梔子(신), 澤瀉(신), 河豚, 海蔘, 玄蔘(신), 荊芥(신), 滑石(신), 黃連(신), 黃柏(신), 黑桑椹
肝藥 (太陽人藥物)	蕎麥(신), 盧根(신), 茅根, 木瓜(신), 獼猴桃(신), 蚌蛤, 松花(신), 蓴, 柰子, 櫻桃(신), 五加皮(신), 柁頭蠟(신), 鯽魚, 青松節(신), 淸酒, 草龍膽, 葡萄(신), 杏仁,

cf. 약물옆에 (신)이라고 적힌 것은 新定方에서도 사용되었던 약물이다.

## 2. 『東醫寶鑑·五臟六腑』의 四象體質別 藥物分類

표1.에서 나는 體質別 藥物을 기준으로 표2.에서 각각의 臟腑에 사용된 單方藥을 분류하였고, 표3.에서는 『東醫寶鑑』 「臟腑篇」에서 사용된 모든 藥物을 體質別로 구별하고 그 使用頻度を 표시해 놓았다.

## 3. 臟腑別 體質藥物畧의 比較

### 1) 臟腑別 體質別 藥物數와 比率

『東醫寶鑑』 각각의 臟腑에 사용된 體質別 藥物數의 비율은 표4.와 같고, 이를 도표화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에서 합계1은 중복된 약물을 고려하지 않은 합계이며, 합계2는 중복된 약물은 하나로 한 약물의 합계로 계산한 것이다.

### 2) 各 臟腑의 總體質藥物과 各 臟腑의 總單方藥物中에서 各 體質別 藥物이 차지하는 比率

표5.에서는 『東醫寶鑑』 「臟腑」의 總藥物에서 各 體質別藥物의 빈도를 알아보았고(분모를 總藥物數로 함), 표6.에서는 『東醫寶鑑』 「臟腑」의 藥物中에서 體質別藥物에서 各 體質別藥物의 빈도를 알아보았다(분모를 總體質別藥物數로 함). 이를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이 그림 2.와 그림 3.이다.

표 2. 『東醫寶鑑』의 各 臟腑別 單方藥의 體質別 藥物分類

	少陰人藥物	太陰人藥物	少陽人藥物	太陽人藥物	非四象人藥物
肝臟 (21種)	細辛, 芍藥, 苦參, 靑皮, 葱白	酸棗仁	黃連, 車前子, 覆盆子, 山茱萸, 小麥	草龍膽, 木瓜	沙參, 蒼耳子, 李, 空青, 決明子, 薺子, 韭, 靑箱子
心臟 (22種)	赤石脂	石菖蒲, 麥門冬, 遠志, 蓮子, 杏, 犀角, 金箔銀箔	朱砂, 生地黃, 黃連, 茯神, 小麥, 赤小豆, 薄荷汁, 連翹, 梔子		鷄子, 苦菜, 竹葉, 黃丹, 龜甲
脾臟 (24種)	蒼朮, 白朮, 縮砂, 藿香, 丁香, 厚朴, 橘皮, 大棗, 稷米, 糯米, 神麴*, 蜜, 粟米	升麻, 牛肉	大麥芽, 神麴*	鯽魚, 乾柿	通草, 飴糖, 陳倉米, 鱈魚, 葵, 雄黃
肺臟 (22種)	人參, 橘皮, 枳殼, 桃	天門冬, 麥門冬, 五味子, 片黃芩, 桔梗, 桑白皮, 烏梅, 杏仁			苧麻子, 胡桃, 黍米, 牛乳, 鷄子白, 馬兜鈴, 雲母, 沙參, 紫貝, 貝母
腎臟 (23種)	沈香, 破故紙	鹿角膠, 鹿茸, 栝子仁, 五味子, 栗	覆盆子, 山茱萸, 熟地黃, 肉苁蓉, 知母		狗陰莖, 牡蠣, 陽起石, 鹽, 腿肭臍, 牛腎, 磁石, 兔絲子, 黑豆, 杜沖, 桑螺蛸
膽臟 (5種)	細辛		柴胡, 黃連		乾地黃, 白百合
胃腑 (27種)	人參, 白豆蔻, 蒼朮, 白朮, 丁香, 縮砂, 乾薑, 生薑, 稷米, 大棗, 橘皮	葛根, 大豆	石膏, 大麥	鯽魚, 乾柿	粳米, 靑梁米, 牛肚, 羊肉, 黃雌鷄, 鱈魚, 石首魚, 韭, 黃狗肉, 芋
小腸腑 (9種)			澤瀉, 木通, 連翹, 茯神, 梔子		黑豆, 冬瓜汁, 翟麥, 煮葵汁
大腸腑 (24種)	訶子皮, 葱白, 粟米稬	烏梅, 大黃, 桑白皮	梔子, 童尿(童便)		黃狗頭骨, 五倍子, 石榴殼, 陳倉米, 牡蠣粉, 郁李仁, 脂麻油, 水芹, 絲蓴, 牛乳, 桃花, 橡實, 續隨子, 麻仁, 冬瓜, 松菜
膀胱腑 (17種)	茴香, 靑橘皮, 烏藥, 吳茱萸	栝子仁	澤瀉, 黃柏		防己, 石韋, 郁李仁, 椒目, 豬腎, 昆布, 魚膽, 威靈仙, 地膚子, 瞿麥
三焦腑 (13種)	黃芪, 益智仁, 人參, 靑橘		蝼蛄		燕覆子, 牛髓, 脂麻油, 豬腸, 絲蓴, 鴨肉, 黃狗肉

표 3. 『東醫寶鑑·臟腑』에 사용된 모든 單方藥의 體質別 藥物分佈

分類	藥物
少陽人藥物	訶子皮, 乾薑, 苦參, 藿香, 橘皮(3), 糯米, 大棗(2), 桃, 米稬, 蜜, 白豆蔻, 白朮(2), 生薑, 細辛(2), 粟(2), 神麴*, 吳茱萸, 烏藥, 益智仁, 人參(3), 芍藥, 赤石脂, 丁香(2), 枳殼, 稷米(2), 蒼朮(2), 青橘, 青橘皮, 青皮, 葱白(2), 縮砂(2), 沈香, 破故紙, 黃芪, 茴香, 厚朴
太陰人藥物	葛根, 金箔銀箔, 桔梗, 鹿角膠, 鹿茸, 大豆, 大黃, 麥門冬(2), 栝子仁(2), 酸棗仁, 桑白皮(2), 犀角, 石菖蒲, 升麻, 蓮子, 烏梅(2), 五味子(2), 牛肉, 遠志, 粟, 天門冬, 片黃芩, 杏, 杏仁
少陽人藥物	熟地黃, 肉苁蓉, 知母, 柴胡, 黃連, 石膏, 大麥, 澤瀉, 木通, 連翹, 茯神, 梔子(2), 童尿(童便), 澤瀉, 黃栢, 蛄瓜, 黃連, 車前子, 覆盆子, 山茱萸, 小麥, 朱砂, 生地黃, 黃連, 茯神, 小麥, 赤小豆, 薄荷汁, 連翹, 梔子, 大麥芽, 神麴*, 覆盆子, 山茱萸
太陽人藥物	乾柿(2), 木瓜, 鯽魚(2), 草龍膽
非四象人藥物	梗米, 乾地黃, 決明子, 鷄子, 鷄子白, 苦菜, 昆布, 空青, 韭(2), 龜甲, 瞿麥(2), 狗陰莖, 葵, 桃花, 冬瓜, 冬瓜汁, 杜沖, 馬兜鈴, 麻仁, 牡蠣, 牡蠣粉, 防己, 白百合, 絲蓴(2), 沙參(2), 椴實, 桑螵蛸, 黍米, 石榴殼, 石首魚, 石葦, 檳榔子, 水芹, 鶉肉, 松菜, 陽起石, 羊肉, 魚膽, 燕覆子, 鹽, 五倍子, 臘臍臍, 芋, 牛肚, 牛髓, 牛腎, 牛乳(2), 郁李仁(2), 雲母, 雄黃, 威靈仙, 李, 飴糖, 煮棗汁, 磁石, 紫苑, 豬腎, 豬腸, 葶藶子, 薺子, 竹葉, 脂麻油(2), 地膚子, 陳倉米(2), 蒼耳子, 青梁米, 青箱子, 椒目, 鱈魚(2), 兔絲子, 通草, 貝母, 胡桃, 黃狗頭骨, 黃狗肉(2), 黃丹, 黃雌鷄, 黑豆(2),

표 4. 『東醫寶鑑·臟腑』單方藥의 體質別 藥物數 및 그 比率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	大腸	膀胱	三焦	합계
全體 藥物數	21	22	24	22	23	5	27	9	24	17	13	207 (176)
少陰人藥物數	5	1	13	4	2	1	11	0	3	4	4	48 (36)
太陰人藥物數	1	7	2	8	5	0	2	0	3	1	0	29 (24)
少陽人藥物數	5	9	2	0	5	2	2	5	2	2	1	35 (34)
太陽人藥物數	2	0	2	0	0	0	2	0	0	0	0	6 (3)
非體質藥物數	8	5	6	10	11	2	10	4	16	10	7	89 (79)
체질약물율(%)	61.9	77.3	72	54.6	52.2	60	59.3	55.6	33.3	41.2	38.5	56.0(55.1)

cf. 合계의 ( )안의 수는 같은 약물이 여러 장부에서 사용되었을 경우에 약물수만을 헤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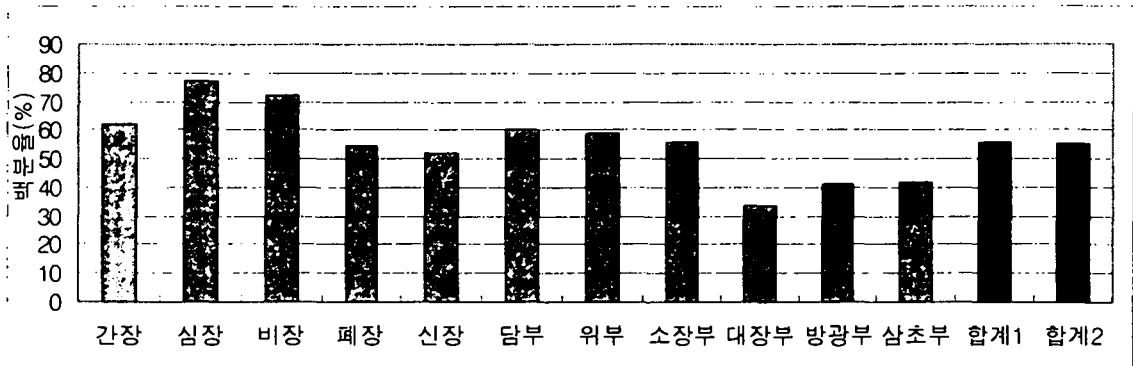


그림 1. 臟腑別 總藥物중 體質別 藥物使用比率

표 5. 總臟腑藥物中에서 各體質別 藥物의 使用比率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	大腸	膀胱	三焦
少陽人藥物率	23.8	4.6	50	18.2	8.7	20	39.3	0	12.5	23.5	33.3
太陰人藥物率	4.8	31.8	7.7	36.4	21.7	0	7.1	0	12.5	5.9	0
少陽人藥物率	23.8	40.9	7.7	0	21.7	40	7.1	55.6	8.3	11.8	8.3
太陽人藥物率	9.5	0	7.7	0	0	0	7.1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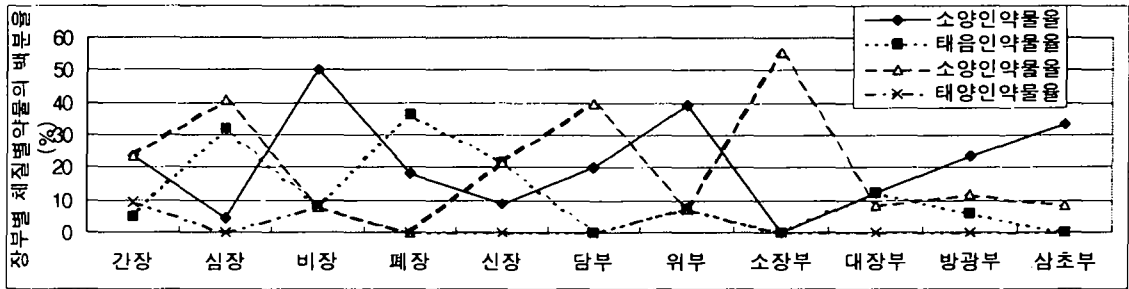


그림 2. 總臟腑藥物中에서 各體質別 藥物의 使用比率

표 6. 總體質別 藥物中에서 各體質別 藥物의 使用比率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	大腸	膀胱	三焦
少陰人藥物率	38.4	5.8	68.4	33.3	16.7	33.3	64.7	0	37.5	57.1	80
太陰人藥物率	7.7	41.2	10.5	66.7	41.7	0	11.8	0	37.5	14.3	0
少陽人藥物率	38.5	52.9	10.5	0	41.7	66.7	11.8	100	25	28.6	20
太陽人藥物率	15.4	0	10.5	0	0	0	11.8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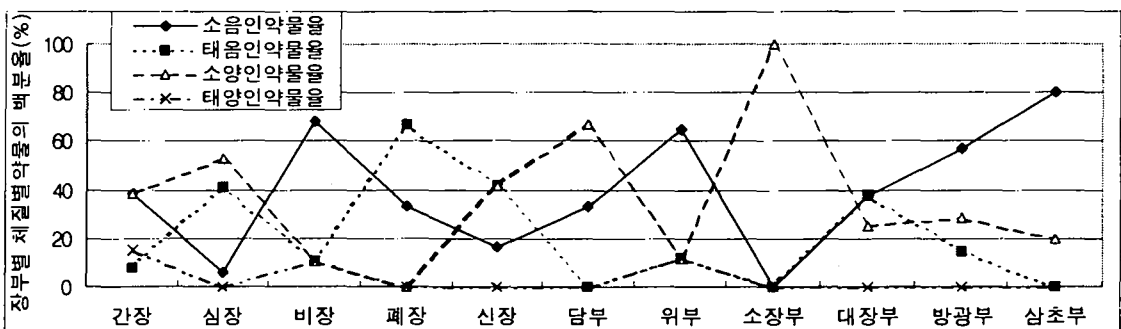


그림 3. 總體質別 藥物中에서 各體質別 藥物의 使用比率

### III. 考察

東武는 『醫源論』에서 “醫家の 공로와 업적으로 말한다면 마땅히 張仲景, 朱肱, 許浚을 으뜸으로 해야 할 것이고...”, “...明나라에 이르러 李梴, 龔信 등이 모든 醫術을 갖추었으며, 許浚이 이것을 자세히 전수하여 東醫寶鑑을 著述하여 醫學이 다시 發展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許浚을 張仲景, 朱肱과 함께 으뜸인 醫家로 뽑았으며 『東醫寶鑑』은 醫道復興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sup>1)</sup>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직접적으로 『東醫寶鑑』을 인용한 부분은 한 곳도 없지만 『病證論』에서 인용된 醫案은 대부분 『東醫寶鑑』에서 이용된 문장들이다.<sup>2)</sup> 그래서 東武는 許浚의 『東醫寶鑑』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既存의 臟腑, 經絡의 理論으로 四象體質을 접근하고 있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太極針法과 八體質針法이다. 이 두 이론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內經 臟腑論과 四象 臟腑論의 差異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太極針法에서는 少陽人에 있어서 각 臟氣에 대한 五行配屬이 달라지고, 八體質針法에서는 辨證基準을 脈에 두고 있어 脈을 보는 位置와 脈圖가 경험적 유효성 외에 理論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이다.<sup>3)</sup>

『東醫寶鑑』, 『臟腑』의 單方藥에서는 각 臟腑에 사용되는 藥物을 기술해 놓고 있으니, 이는 『東武遺稿』<sup>4)</sup>에서 肝藥, 肺藥, 脾藥, 腎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四臟에 사용할 수 있는 藥物로 분류해 놓은 것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는 東武가 처음 四象人의 藥物을 분류할 때 『東醫寶鑑』 單方藥의 형식을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해 볼 수 있다. 『東醫四象新編』에서도 體質別 藥物分類를 해 놓았지만 東武와 의견이 다른 약물이 보이고 잘 사용하지 않은 약물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東醫寶鑑』, 『臟腑』의 單方藥에서 四象體質別 藥物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 개 臟腑의 單方藥이 모두 한 개의 體質의 藥物로 구성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176種의 藥物이 207回 사용되었고 이 중에서 四象人 藥物은 97種의 藥物이 116回 사용되어, 四象人 藥物의 種類로는 55.1%가 사용되었고, 四象人 藥物의 回數로는 56.0%가 사용되었다. 11개의 臟腑 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腑의 8개 臟腑에서 50% 이상 四象仁 藥物이 사용되었으며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에서는 50% 이하가 사용되었다.

體質別로 多用된 臟腑를 살펴보면 少陰人 藥物은 脾臟, 胃腸, 膀胱腑, 三焦腑에서 多用되었고, 太陰人 藥物은 肺臟에서 多用되었으며, 少陽人 藥物은 心臟, 膽腑, 小腸腑에서 多用되었고, 太陽人 藥物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四象人의 臟腑에 대한 藥物과 비교해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고, 『東醫寶鑑』, 『臟腑』의 單方藥 全體가 순수하게 한 體質의 藥物로만 구성된 臟腑가 없었고, 小腸腑에서는 유일하게 體質別 藥物만으로 비교했을 때 少陽人 藥物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열 개의 臟腑에서는 여러 體質의 藥物이 混合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첫째, 四象人의 臟腑인 肺脾肝腎, 胃脘胃小腸大腸은 既存醫學의 五臟六腑와 차이가 있었고, 둘째, 각각의 體質의 藥物은 既存醫學에서 말하는 五臟六腑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IV. 結論

『東醫寶鑑』, 『臟腑』의 單方藥과 四象人의 藥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東醫寶鑑』, 『臟腑』 單方藥은 四象人의 藥物에서 50% 이상 사용되었다.
2. 小腸腑를 제외한 열 개의 臟腑 單方藥에서는 2~4개의 體質別 藥物이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3. 『東醫寶鑑』, 『臟腑』의 單方藥에서 少陰人 藥物은 脾臟, 胃腑, 膀胱腑, 三焦腑에서 多用되었고, 太陰人 藥物은 肺臟에서 多用되어, 保命之主를 도와주는 四象臟腑와 관련성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으나, 少陽人 藥物은 心臟, 膽腑, 小腸腑에서 多用되었고, 太陽人 藥物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保命之主를 도와주는 四象臟腑와의 관련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 參考文獻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社. 1986.
2.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3 ; 5(1) : 1-33.
3. 이병행. 침도원류증마. 서울. 행림서원. 1974 : 344-354.
4. 권도원. 체질침. 대한한의학회보. 1965 ; 통권16호 : 25-28.
5. 許浚著. 東醫寶鑑. 大星出版社. 1990 ; 內景 : 326-399.
6. 李濟馬著. 량병무, 차광석역 韓國의학대계-동무유고. 해동의학사. 1999 : 21-97.
7. 元持常著. 東醫四象新編. 文友社. 1929 : 17-18, 57
8. 崔炳一, 高炳熙, 宋一炳. 體質에 應用되고 있는 針治療法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89 ; 1(1) : 186-187.